

마을:記

애월읍 수산리,
기억으로 엮은 사진과 이야기

마을:記

매월을 수산리,
기억으로 엮은 사진과 이야기

일러두기

1. 이 사진자료집은 애월읍 수산리 마을과 주민들이 소장해 온 자료 가운데 역사적·생활사적·기록 가치가 높은 사진 163점을 선정해 수록하였다.
2. 사진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목], [시대], [소장자] 순으로 표기하였다.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정 시기를 기재하거나 '미상'으로 표기하였다.
3. 본문 큰따옴표(“ ”) 안의 내용은 마을 주민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구술 발화의 특징을 살려 제주어와 표준어 대역을 함께 표기하였으며, 구술 발화자의 이름도 별도로 표기하였다.
4. 사진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주민들의 기억과 구술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오래된 기록의 특성상 실제 정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향후 수정이 필요한 자료는 고증을 거쳐 제주학 아카이브 세부 내용에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목차

1. 《마을:記》 시작하며	06
2. 수산리 마을 이야기	14
3. 수산리 사람 이야기	66





애월읍 수산리 마을 전경(2025년, 제주학연구센터)

《마을:記》 시작하며

1

사진으로 되살아난 기억과 삶의 이야기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핵심 과제인 '마을 자원 아카이빙'은 특정 마을을 선정해 훼손 위험이 있는 주민 소장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자료 수집에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과의 면담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아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사건과 생활상, 풍습 등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마을 자원 아카이빙 사업'의 첫 번째 대상 마을은 애월읍 수산리다. 애월읍 수산리는 제주도 북서쪽에 자리한 전형적인 중산간 농촌 마을로, '물메'라는 지명이 상징하듯 산과 물이 어우러진 풍경을 간직하는 곳이다. 수산저수지가 축조된 이후 마을의 외형이 일찍부터 변화해 오는 등 제주의 근현대 생활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짙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직접 옛 사진과 자료, 유물을 수집해 전시관을 운영하며 마을의 발자취를 기록해 오고 있다. 이러한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잊지 않으려는 정성에 주목해 제주학연구센터는 애월읍 수산리를 '마을 자원 아카이빙 사업'의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했다.

앨범 속 사진 디지털화와 주민 기억 엮기

《마을:記-애월읍 수산리》는 마을에서 소장한 사진과 제주학연구센터가 면담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수집한 사진, 그리고 주민들의 기억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입수한 사진들은 오래전 인화된 채 소장자 자택의 앨범이나 액자에 보관되어 있거나 껴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실물 사진을 스캔해 디지털로 변환하여 보존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진에 담긴 맥락과 의미를 복원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주민 22명을 직접 찾아뵈었다. 면담 조사팀은 사진을 함께 보며 촬영된 인물과 장소, 시기, 당시의 상황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주민들은 “다시 꺼내 볼 줄 몰랐던 사진들을 오랜만에 펼쳐 보인다”며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과 마을의 옛 풍경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꺼내갔다. 주민과 함께한 면담 작업은 사진 자료의 기초 데이터 구축과 정보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 동시에 낡은 사진 속에 담긴 마을 이야기와 삶의 흔적을 최대한 복원하는 일이었다. 수집된 사진 속에는 삶의 중요한 순간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한 행사 기록,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마을 옛 풍경 등이 담겨 있었다.

수산리 삶과 공동체의 시간을 나누며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제주학 아카이브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작성 기준에 따라 새롭게 정리하였다. 추후 자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민(소장자)별로 자료를 분류하였다. 이후 검토 과정을 거치며 사진 정보와 기초 내용을 분석해 제주학 아카이브 등록 체계에 맞게 재정비하였다. 분류 기준은 ‘학문별’, ‘시대별’, ‘지역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수산리에서 수집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학문별	건수	시대별	건수	지역별	건수
종교	12	1940년대	3	제주시	89
사회과학	436	1950년대	18	애월읍	319
기술과학	36	1960년대	96	대정읍	4
자연과학	16	1970년대	153	서귀포	50
역사	4	1980년대	58	성산읍	2
		1990년대	41	안덕면	3
		2000년대	48	표선면	4
		미상	89	한림읍	2
				도외	22
				국외	2
				미상	7

제주학 아카이브에 입력하는 메타데이터 항목 가운데 학문별 분류체계는 자료의 주제를 나타내는 체계이다. 마을의 민속과 역사 등 학술적 관점에 따라 자료를 분류함으로써, 수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대분류 6개 체계로 분류되었다. 수집된 자료에는 종교와 관혼상제, 마을제 등 의식·의례 관련 자료를 비롯해 생업 활동, 옛 마을 지리와 관련된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시대별 분류는 사진이 촬영된 시점을 나타낸다. 자료는 대체로 연·월·일 순으로 기록하였으며,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남겨두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수산리에서 수집된 자료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대에 따른 생활문화와 마을의 변화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가운데 지역 분류는 촬영 장소와 관련된 정보이다. 지역 분류는 '국내·국외', '제주도 내·외', 그리고 제주도 내 세부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특정 장소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상'으로 정리하였다. 수집된 사진 대부분은 제주도 내 생활문화를 담고 있었으나, 일부는 국외나 제주도 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군대나 보훈 관련 사진, 제주 여성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방직공장' 사진, 재일제주인 문화 자료, 도외 수학여행지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와 시기, 지역으로 구성된 자료 가운데 시대적 특성과 지역적 상징성, 기록 가치를 고려해 1차로 약 500여 건을 정리하였다. 이후 사진자료집 《마을:記-애월읍 수산리》에 수록할 사진 163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진은 특성과 주제에 따라 '마을 생활상'과 '개인 생활사'라는 두 범주로 나누었고, 사진과 주민의 기억, 구술 내용을 정리하여 '수산 마을 이야기'와 '수산 사람 이야기'로 재구성하였다.

구분	내용		건수
마을 생활상	마을 옛 경관	옛 수산사거리, 물통, 수산저수지 · 수산랜드, 곰솔 등	20
	농경 생활	참외 농사, 과수원	4
	마을 조직	4H활동, 노인회, 부인회 등	9
	마을 행사	포제, 걸궁, 체육대회, 마을 야유회 등	6
개인 생활상	아이들	돌잔치, 일상생활 등	12
	청소년	수학여행, 운동회, 소풍, 졸업식 등	33
	성년	일상생활, 약혼과 혼례, 환갑, 상례와 제례 등	79

사진자료집 1장 ‘수산리 마을 이야기’에는 마을의 원풍경과 변화해 온 농경 모습, 마을 행사 등 마을에 얽힌 이야기를 담았다. 2장 ‘수산리 사람 이야기’에는 주민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의식주 풍경과 통과 의례, 일상생활 등을 수록하였다.

기록의 가치를 공유하며

요즘은 한 손에 쥔 휴대전화로 일상을 기록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해 특별한 날을 기다려야 했으며,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도 들여야 했다.

“여기선 사진 별로 안 찍어. 여기서 결혼하기 전이냐 사진 찍으려 어디
다닐 수가 있어? 일이나 가사. 난 어릴 때부터 일에 얼먹었젠.”

| 여기선 사진 별로 안 찍어. 여기야 결혼하기 전에야 사진 찍으려 어디
다닐 수가 있어? 일이나 가야. 난 어릴 때부터 일에 얼먹었다고.

- 김영순 씨 구술

한 주민의 구술처럼 지난 세월은 사진 한 장 남길 여유조차 없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번 《마을·記-애월읍 수산리》는 주민들의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어 삶의 시간을 함께 추억하고, 그 안에 맺혀 있던 애환을 나누고자 하였다.

물론 이 사진자료집에 담긴 모습들은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일 수 있다. 그러나 수산리만의 고유한 풍경과 생활상을 살펴보는 과정은 과거의 문화와 시대상을 기록하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익숙한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당시의 삶을 되돌아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 사진자료집은 애월읍 수산리 마을 관계자와 주민들의 도움으로 발간될 수 있었다. 사진 수집을 위해 애써주신 수산리 이장님, 노인회장님, 마을활동가님, 마을 도서관 사서님 덕분에 모든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특히 새마을 도서관의 지원으로 주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사진 속 배경과 인물 정보를 재확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었다. 아울러 기초 자료를 기록하는 작업에는 김병효, 김선희, 김지혜, 이현옥 선생님이 참여해주었으며, 사진 스캔과 데이터 정리에는 양재연 연구보조원이 함께하였다. 무엇보다 사진 한 장, 기억 한 조각, 말 한마디를 기꺼이 내어주신 애월읍 수산리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소장자(자모순)

강군자, 강남석, 강남승, 강옥순, 강인숙, 강정자, 강홍중, 고영주,
김영순, 김원출, 박규현, 박규남, 박송자, 박철성, 송옥자, 송옥희,
양길철, 양용규, 이순정, 전경순, 홍성량, 홍행기

애월읍 수산리에서 만난 사진들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 마을의 역사와 정서,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진자료집이 수산리 주민들과 자료를 접하는 이들에게 마을의 기억을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리된 자료는 앞으로 학술 연구와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학 아카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애월읍 수산리 마을 전경(2025년, 제주학연구센터)

수산리 마을 이야기

2

애월읍 수산리는 애월읍의 중산간과 해안 사이에 자리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이곳은 '큰동', '섯동', '당동', '예원동' 등 여러 자연마을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예로부터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좋은 마을'로 불려왔다.

“물 수 자에 댜 산 자 따가지고 수산을 했는데. 수산으로 된 지는 얼마 안 됐지.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물이 많고 산이 있어서 물메를 했지. 마을이 오 개 동이라. 당동, 섯동, 큰동, 예원동, 하동.”

| 물 수 자에 댜 산 자 따서 수산을 했는데. 수산으로 된 지는 얼마 안 됐지.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물이 많고 산이 있어서 물메를 했지. 마을이 오 개 동이야. 당동, 섯동, 큰동, 예원동, 하동.

- 강홍종 씨 구술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 구역의 변화로 오늘날과 같은 자연마을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큰동'은 가장 넓은 터를 차지하는 중심지로 달리 '큰동네' 또는 '상동'이라 불렀다. 현재 '큰동'은 수산리 교차로를 중심으로 수산리복지회관과 물메초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하동’은 수산봉 동쪽 일대에 형성된 마을로, ‘오름가름’ 또는 ‘알동네’라고도 불린다. 이곳에는 1960년대 수산저수지(당시 귀암저수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약 70여 가구가 거주하였다. 이후 저수지 축조로 인해 마을 대부분이 수몰되었고, 당시 하동 주민들은 수산리 당동과 하귀리 반대동, 구암리, 제주시 등지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름가름, 오름 바로 옆이 오름 이신 디 맞추게.”

| 오름동네, 오름 바로 옆에 오름 있는 데 맞지.

- 김영순 씨 구술

“당동네 옛날에 당 잇영 정월 나쁜들 막 기도허레 가주게, 당할망 신 디덜.”

| 당동네 옛날에 당 있어서 정월 되면들 마구 기도하러 가지, 당할머니 있는 데들.

- 김영순 씨 구술

“저쪽은 당동이고 옛날 당할망 모셔놔어 그래서 거기 당동네고. 저 예원동이라고 길쪽에 거 있고.”

| 저쪽은 당동이고 옛날 당할머니 모셨었어. 그래서 거기 당동네고. 저 예원동이라고 길쪽에 거 있고.

-강군자 씨 구술

‘당동’은 원래 소규모 가구가 생활하던 곳이었으나, 저수지 축조 이후 ‘하동’ 주민 일부가 이주해 오면서 마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마을을 지켜주는 ‘할망당’이 있던 ‘당가름’에서 이름을 따와 ‘당동’이라 부르며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당동은 수산리를 대표하는 수산봉(표고 122m)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섯동’ 또는 ‘섯동네’는 ‘큰동’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해 붙여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жат’이 형성되어 있어 ‘жат동네’라고도 불린다. 이곳에는 옛 공회당 터와 감귤선과장이 있으며, 대부분 취락 형태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는 섯동네라고도 하고 жат동네라고도 해.”

| 여기는 ‘섯동네’라고도 하고 ‘жат동네’라고도 해.

- 박규현 씨 구술

‘예원동’은 수산리에서 가장 동남쪽에 자리한 마을이며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새가름’이라고도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행정구역이 ‘상귀리’와 ‘수산리’로 나뉘어 있기도 했으나 이후 애월읍 수산리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마을 풍경

아스팔트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오가는 수산리 중심지는 예로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수산 네거리’라 불리던 요충지였다. 이곳은 마을의 여러 길이 만나는 지점이자 주민들이 모여 정답게 담소를 나누던 쉼터였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모이던 이곳은 수산리의 일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

“네거리에 동그랑헌, 요새 뭐렌 허나, 동그랑허잖아. 그거 만들어 놓은 거 로터리에 낱 심근 거.”

| 사거리에 동그란, 요새 뭐라고 하나, 동그랑잖아. 그거 만들어 놓은 거 로터리에 나무 심은 거.

- 박송자 씨 구술

“수산 옛 거리. 수산사거리 울타리를 만들어 났어요. 마을회관 앞에. 여기 나무 심어났었는데 나무 잘라버리곡 안 보이난.”

| 수산 옛 거리. 수산사거리 울타리를 만들어 났어요. 마을회관 앞에. 여기 나무 심었었는데 나무 잘라버리고 안 보이니까.

- 강홍중 씨 구술



수산리 상동 네거리 전경
(1960년대, 소장자 강군자)



수산리 사거리 원형 로터리
(1970년대, 소장자 강홍종)



수산리 네거리 원형 로터리에서 가족과 함께
(1970년대, 소장자 박송자)

옛 제주 사람들의 거주지 주변에는 주로 '울담'과 '대왓'이 조성되어 있었다. 대나무 밭은 주로 '죽대' 등을 심어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도구의 재료를 마련하는 곳이었다. 또한 '울담'을 집 둘레를 높게 둘러 쌓아 집 경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마을 길이 정비되고 주거 환경이 근대화되면서 이러한 풍경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잣질이 잇었는데 올레 가면은 이제 포장되고 헛지만 잣질, 잣으로 된 길이었는데. 이제는 잣을 싹 포장하면서 걷어내버리니까 그 흔적은 없어졌지. 그 앞이서 찍은 거.”

|성길이 있었는데 오래 가면 이제 포장되고 헛지만 성길, 성으로 된 길이었는데. 이제는 성을 싹 포장하면서 걷어내버리니까 그 흔적은 없어졌지. 그 앞에서 찍은 거.

- 박규현 씨 구술



대나무와 울담 앞 어머니와 친구들
(미상, 소장자 박규현)

물이 좋기로 알려졌던 수산리에는 한라산에서 발원한 수산천과 여러 용천수가 있었다. 이는 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마소가 먹는 물로 이용되었다. '큰동'과 '하동'에는 장수물, 공섬지, 새섬지, 원물 등이 있었고, '당동'은 '뒷못'과 '가라못'이 있었다.

주요 식수원이었던 우물터는 1970년대 중반 마을 전역에 공동수도가 설치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연못과 우물터 앞에서 촬영된 인물 사진에는 상수도 시설이 보급되기 이전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



수산리 당동 연못과 마을 풍경
(1960년대, 소장자 김원출)



수산리 우물터 앞에서 누이들과
(1970년대, 소장자 강홍중)

1960년 농업용 저수지로 준공된 수산저수지(당시 귀염저수지)는 수산리의 풍경을 크게 바꾼 변화의 상징이었다. 저수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수산봉 아랫마을인 '하동' 일대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저수지는 부모님 세대에게 고향을 잃은 장소로 기억되지만 어린아 이들에게는 그저 물장구치며 뛰놀던 커다란 놀이터로 기억하였다. 당시 학교를 마친 아이 들은 가방을 벗어 던진 채 저수지로 달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옛날 제방이 놀이터였주께.”

| 옛날 제방이 놀이터였지.

- 박규현 씨 구술

**“제방 길이가 한 백오십 미터 돼거든. 지금 물 싸가지고 하느디. 우리아
어릴 때 하천에서 제방까지 왔다갔다 했지. 물 빠지면 주민들 빨래터.”**

| 제방 길이가 한 백오십 미터 돼거든. 지금 물 빠지고 하는데. 우리아 어릴
때 하천에서 제방까지 왔다갔다 했지. 물 빠지면 주민들 빨래터.

- 강홍종 씨 구술

**“저수지에서 우측으로 보면 우뚜방수라고 있어요. 그 우뚜방수에서
헤엄을 치면서 왔다갔다 했던 거지. 우뚜방수하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 가서 목욕, 그 다이빙도 하고. 거의 놀았지.
젊은이들 여자 남자 할 거 있어.”**

| 저수지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우뚜방수'라고 있어요. 그 '우뚜방수'에서
헤엄을 치면서 왔다갔다 했던 거지. '우뚜방수'하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 가서 목욕, 그 다이빙도 하고. 거의 놀았지.
젊은이들 여자 남자 할 거 없어.

- 이순정 씨 구술



수산저수지 제방에 모인 아이들
(1966년, 소장자 강인숙)



수산저수지 제방과 수산봉
(미상, 소장자 양길철)

너른 저수지 제방은 어머니들의 일터이기도 했다. 시집가는 딸을 위해 흰 광목을 넓게 펼쳐 두고 혼수 이불감을 마련하던 공간이었다. 또, 평소에는 저수지에서 빨래를 한 뒤 제방 위에 널어 말렸다고 전해진다.

“그때는 거기서 우리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집가젠 하면 옛날에는 지금 같이 무슨 부들부들한 천이 있어? 광목 해연에 한 필 사다가 문막 찢어. 그 이불만큼 재단하여근에 그 제방 너른 돌담 우이 강 하얗게 만들어 경허연 시집갓지. 경허연 촌엿 어른들은 저수지 강 뺑 아이고 자이 시집가젠 준비헬저. 광목 발레염저 말허지.”

|그때는 거기서 우리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집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지금 같이 무슨 부들부들한 천이 있어? 광목 해서 한 필 사다가 몽땅 찢어. 그 이불만큼 재단해서 그 제방 넓은 돌담 위에 가서 하얗게 만들어서 시집갓지. 그래서 촌 어른들은 저수지 가서 보고 아이고 저 아이 시집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광목 바래고 있어 말하지.

- 강인숙 씨 구술

‘수산유원지(수산랜드)’는 수산저수지의 농업용수 기능이 약해지면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제주도 내 대표적인 유원지 가운데 하나로 운영되었다. 이곳에는 열차와 회전컵, 그네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들어섰고, 특히 수량이 풍부한 저수지를 활용해 중앙에는 보트장과 낚시터, 오리배 시설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수상 가옥 형태의 시설이 조성되어 마을 주민들의 약혼식이나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우리 아들 다섯, 여섯 살 때 어린이날 아이네 데령인에 오월 오일날 경헨 막 드라이브도 하고 사진들도 찍었더라. 그쪽에 청룡열차, 오리배 거기 간에 막 많이 탔지. 회전컵도 잇었고. 물 가운데 오리배 띄워서 가운데 왔다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 우리 아들 다섯, 여섯 살 때 어린이날 이 아이들 데리고 오월 오일 그렇게 마구 드라이브도 하고 사진들도 찍었더라. 그쪽에 청룡열차, 오리배 거기 가서 마구 많이 탔지. 회전컵도 있었고. 물 가운데 오리배 띄워서 가운데 왔다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 이순정 씨 구술

“물 위에 그 집이 잇었거든. 거기 저수지 앞앙 또 결혼식들도 허곡 했어.”

| 물 위에 그 집이 있었거든. 거기 저수지 앞에서 또 결혼식들도 하고 했어.

- 강홍중 씨 구술



약혼식날 수산유원지에서
(1990년, 소장자 박철성)



수산유원지 보트장 '수산궁' 앞에서
(1992년, 소장자 박철성)



수산유원지 전경
(1993년, 소장처 애월읍 수산리)



수산유원지 어린이날
(1994년, 소장자 이순정)

수산저수지 물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산리곰솔'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곰솔은 물가를 향해 길게 뻗은 가지가 아래로 늘어진 모습이 마치 곰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령 약 450년에 이르는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수산리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 왔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지금도 다양한 마을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어버이날 큰동네 놀다가 와서 우리 동네 분만 따로 흥에 겨워서 곰솔 밑에서 춤추면서 했던 거. 어버이날 행사 당동만 뒤풀이한 거.”

| 어버이날 큰동네 놀다가 와서 우리 동네 분만 따로 흥에 겨워서 곰솔 밑에서 춤추면서 했던 거. 어버이날 행사 당동만 뒤풀이한 거.

- 전경순 씨 구술



수산리 곰솔 아래에서 어버이날 기념 행사
(1983년, 소장자 전경순)



수산리 곰솔 앞 친구들과 함께
(1976년, 소장자 양길철)



수산리 곰솔 아래 아이들과 함께
(2000년대, 소장자 박송자)

“우리가 나무 중간에 올라가서 놀고 그랬었거든. 초등학생들이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 근데 한 네 명이 이렇게 해도 안 돌아갈 정도로 굵은데 어떻게 올라가, 되게 힘들었어. 올라가서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요기 물 막 고이면은 요 위에 올라가지고 나뭇가지 흔들다가 뛰어내리기도 그랬는데.”

| 우리가 나무 중간에 올라가서 놀고 그랬었거든. 초등학생들이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 근데 한 네 명이 이렇게 해도 안 돌아갈 정도로 굵은데 어떻게든 올라가, 되게 힘들었어. 올라가서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물 마구 고이면 요 위에 올라서 나뭇가지 흔들다가 뛰어내리기도 그랬는데.

- 양길철 씨 구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요 앞에 길인데 잔디가 깔려 있었어. 그래 갖고 요 길에서 여름방학 되면은 조기회를 했다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 매일 조기회를 해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운동해라 해가지고. 우리 동네 애들이 여기 가가지고 조기회 했다고. 조기회 하면 요기가 지금도 보면 큰 산 앞에 쪽 직선으로 뻗잖아. 거기서 달리기 해, 달리기. 잔디를 자연적으로 깔려 있었거든. 축구도 하고.”

| 우리 초등학교 때는 요 앞이 길인데 잔디가 깔려 있었어. 그래 가지고 요 길에서 여름방학 되면 조기회를 했다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 매일 조기회를 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운동하라고 해서. 우리 동네 애들이 여기 가서 조기회 했다고. 조기회 하면 여기가 지금도 보면 큰 산소 앞에 쪽 직선으로 뻗잖아. 거기서 달리기 해, 달리기. 잔디를 자연적으로 깔려 있었거든. 축구도 하고.

- 양길철 씨 구술

‘곰솔’은 수산리를 지켜주는 수호목이자 주민들에게는 쉼터 같은 존재였다. 아이 네 명이 함께 팔을 벌려도 다 감싸지 못할 만큼 굵은 나무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놀이터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나무를 오르내리며 놀았고, 여름방학이면 아침 일찍 곰솔 아래에 모여 친구들과 운동도 했다. 예전에는 곰솔 앞에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 주민들이 함께 달리기나 축구 경기를 즐기던 공간으로도 이용되었다.

“그때 소나무가 죽을 것 같은 형상을 막 했었거든. 막 안 좋았어. 여기 잘라지고 한 거 보니까. 곰솔 지금 보면 굉장히 잘 우거졌는데. 이거 영성하잖아. 영 안 좋았었거든. 그때는 막 보호하고 안 할 때였으니까. 칠십육, 칠십칠년 정도. 나무가 사백오십 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해도 지금처럼 우거지지 않았었거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요쪽에 가지가 좀 약했었어.”

| 그때 소나무가 죽을 것 같은 형상을 마구 했었거든. 아주 안 좋았어. 여기 잘리고 한 거 보니까. 곰솔 지금 보면 굉장히 잘 우거졌는데. 이거 영성하잖아. 영 안 좋았었거든. 그때는 마구 보호하고 안 할 때였으니까. 칠십육, 칠십칠년 정도. 나무가 사백오십 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해도 지금처럼 우거지지 않았었거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요쪽의 가지가 좀 약했었어.

- 양길철 씨 구술

1970년대 무렵 ‘곰솔’은 한때 고사(枯死)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극심한 병충해로 인해 푸른 잎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지가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병충해를 관리한 끝에 곰솔은 현재와 같은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수산리 곰솔나무
(2000년대, 소장처 애월읍 수산리)

애월읍 수산리에는 불교와 기독교, 수운교 등 여러 종교가 자리하고 있다. 그중 수운교는 동학 계통의 신종교로, 수운 최제우를 교조로 삼고 있다. 여기서 '수운'은 최제우의 호를 뜻한다. 수운교는 전체 신도 가운데 약 60%가 제주도에 거주할 만큼 제주 지역에서 교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리의 수운교도 1960년대 무렵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포교사의 개인 주택을 임시 거처로 삼아 활동을 이어갔지만 8년 뒤 '당동네'에 수운교 수산지부 천법당이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수산리지부 법당 중앙 제단에는 유·불·선 합일 사상을 보여주듯 여러 성상을 함께 모시고 있다. 중앙에는 부처님을 두고, 왼쪽에는 서덕군, 오른쪽에는 순덕군을 배치해 수운교만의 신앙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동네 가다 보면 수운교가 있는데 거기서 갔던 여행인 것 같아요. 종교가 유불선 합친 거예요. 천도교랑 비슷하죠.”

| 당동네 가다 보면 수운교가 있는데 거기서 갔던 여행인 것 같아요. 종교가 유불선 합친 거예요. 천도교랑 비슷하죠.

- 이순정 씨 구술

수산지부의 활동은 지부장인 '정위사'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의례를 치를 때에는 갈색 모자에 황색 모표를 단 '선관'과 청색 두루마기에 노란 허리띠를 두른 '선복'을 착용한다. 정위사를 중심으로 신도회와 청년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모임도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특히 신도회는 정기적으로 제주도를 일주 활동을 하거나, 도내 다른 지부 청소년들과 연합 행사를 열기도 했다.



수운교 수산지부 천법당 낙성 기념
(1968년, 소장자 양길철)



수운교 수산지부 법당에서 신도들과 함께
(1990년대, 소장자 강옥순)



제1회 수운교청소년 하계연합수련대회
(1972년, 소장자 양길철)



수운교 수산지부 신도회 도일주 천지연폭포 관광
(1972년대, 소장자 강홍종)

2) 농경 생활

애월읍 수산리는 예로부터 농사일을 주업으로 삼아온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1960년대까지 주민들은 보리와 콩, 메밀, '산디(발벼)', 유채 등을 재배하며 살아갔다. 당시 아이들에게는 학교 공부보다 밭에 나가 김을 매는 일이 더 익숙한 일상이었다. "옛날이사 다 경험 살아주(옛날이야 다 그렇게 살았지)."라는 구술처럼 농사일은 수산리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다.

"옛날에 보리, 조, 콩, 산디도 갈곡. 그런 거 주로 헤난. 농사는 한이 었지."

| 옛날에 보리, 조, 콩, 발벼도 갈고. 그런 거 주로 했었어. 농사는 한이 없지.

- 강군자 씨 구술

"산디, 모를 무슨 안 갈아는 게 잇나?"

| 발벼, 메밀 무슨 안 간 게 있어?

- 고영주 씨 구술

"집이 어려우니까 공부허곡 하간거 일절이라. 밭디 가서 김매곡 밭디일 베틀기. 경허단 중간쯤 우리가 한 삼십, 사십 세 돼가사 탄 거 수박이니 양배추니 참외니 그런 거 했주."

| 집이 어려우니까 공부하고 모든 일절이야. 밭에 가서 김매고 밭일밖에. 그러다가 중간쯤 우리가 한 삼십, 사십 세 돼가야 탄 거 수박이니 양배추니 참외니 그런 거 했지.

- 홍성량 씨 구술

“매날 밭일만 허멍. 우리 집에 밭일은 농사지어근에 검질메고. 어류완 돈 벌젠 허든 어디 작업 가간에 간냥 작업이니 무슨 작업이니 드러 다니고. 지금 사는 건 대통령 부럽지 아녀게 사는 거야. 우리 산 때는 어류완 쌀밥이 어디 셔? 농사 졸바로 못 지어. 하도 어렵게 사난 보리밥도 똑바로 못 먹어. 농사를 잘 져야 되는데. 농사가 되질 아녀난 굶어 죽지 아녀든 밀체 해다근에 밥행 먹지, 죽 쑤 먹지. 감자 전분 주시 해당 물 류왕 그거 굴아단 범벅 행 먹곡. 아이고 우리 옛날 사는 거.”

| 맨날 밭일만 하면서. 우리 집에 밭일은 농사지어서 김매고. 어려워서 돈 벌려고 하면 어디 작업 가서 양배추 작업이니 무슨 작업이니 들이 다니고. 지금 사는 건 대통령 부럽지 않게 사는 거야. 우리 살 땐 어려워서 쌀밥이 어디 있어? 농사 똑바로 못 지어. 하도 어렵게 사난 보리밥도 똑바로 못 먹어.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데. 농사가 되질 않으니깐 굶어 죽지 않으려면 밀겨 해다가 밥해서 먹지, 죽 쑤서 먹지. 감자 전분 찌꺼기 해다가 말려서 그거 갈아다가 범벅 해서 먹고. 아이고 우리 옛날 사는 거.

- 김영순 씨 구술



밭에서 검질메는 어머니
(미상, 소장자 김원출)

수산리의 대표 특화작물은 고구마와 참외다. 1960년대까지는 고구마를 썰어 햇볕에 말린 '감저뻗데기(절간고구마)'를 인근 전분 공장에 납품하는 일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참외는 1960년대 후반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수산 참외'라 불릴 만큼 제주도 내에서 품질이 뛰어난 작물로 알려졌다.

“농사 안 해본 게 없지. 나중에 감귤 하나만 했지만 젊었을 때 농사 수박,
감자, 고구마 다 했어.”

| 농사 안 해본 게 없지. 나중에 감귤 하나만 했지만 젊었을 때 농사 수박,
감자, 고구마 다 했어.

- 양용규 씨 구술

“참외농사 막 지어서 물메국민학교 한 이학년인가 삼학년인가 수산봉
갸다오다가, 우리 집이 여기 길 내니깐 다 하나씩 주곡 먹곡 했지. 그냥
손에 하나씩 먹으면서.”

| 참외농사 막 지어서 물메초등학교 한 이학년인가 삼학년인가 수산봉
갸다오다가, 우리 집이 여기 길 안이니깐 다 하나씩 주고 먹고 했지. 그냥
손에 하나씩 먹으면서.

-전경순 씨 구술

“참외농서 한 육십 년도부터 했주. 그때는 참외도 잘 뻤어. 심으면 그때는
그냥 씨로 그대로 땅에 심어 허난. 그때는 막 집에서 영 팔곡 허는 게 허
끔 드물어, 그냥 공판장 망사에만 보내곡. 참외 유월달, 장마철에 또
참외가 많이 나와.”

| 참외농사 한 육십 년도부터 했지. 그때는 참외도 잘 뻤어. 심으면 그때는
그냥 씨로 그대로 땅에 심어서 하니깐. 그때는 마구 집에서 이렇게 팔고
하는 게 조금 드물어, 그냥 공판장 망사에만 보내고. 참외 유월, 장마철에
또 참외가 많이 나와.

-송옥자 씨 구술



물메초 학생 야외수업과 참외 나눔
(1989년, 소장자 고영주·전경순)



참외 수확
(1994년, 소장자 고영주·전경순)

이후 1970년대 초반에는 옥수수 재배로 농사를 이어갔고, 1980년대에 들어 감귤 농사가 본격화되면서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았다. 현재는 초당옥수수를 수확하며 '물메 사탕 옥수수'가 마을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수산봉으로 현장학습을 온 아이들에게 참외를 하나씩 나눠주던 옛 인심은, 이제 초당옥수수를 건네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귤밭 안에서 농약 치는 부부
(1974년, 소장자 박송자)

“육십년대 뻗데기 옛날에 유채 농사, 보리허곡. 옥수수, 지슬 허곡. 지금은 감귤농사. 난 팔십삼 년부터 밀감농사, 수산에 밀감농사 한두 서람 잇거든.

| 육십년대 절간고구마 옛날에 유채 농사, 보리하고. 옥수수, 감자 하고. 지금은 감귤농사. 난 팔십삼 년부터 밀감농사, 수산에 밀감농사 한두 사람 잇거든.

- 홍행기 씨 구술

“허끔 후에 몇 년 엉엉 옥수수 헛주게. 게난 그때 맛도 엉은 옥수수라도. 그르후제 초당옥수수 나오건 디 몇 년 안 땀.”

| 조금 후에 몇 년 없어서 옥수수 했지. 그러니깐 그때 맛도 없는 옥수수라도. 그 이후에 초당옥수수 나온 지 몇 년 안 땀어.

- 송옥자 씨 구술

3) 마을 조직과 행사

1950년대 후반 ‘물메초등학교’가 들어서고, 1960년대에는 수산저수지가 조성되면서 마을 풍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처럼 주민들의 삶 속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주민 간의 유대는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이어졌다. 수산리 주민들은 서로 힘을 나누던 ‘수눔음(품앗이)’ 문화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후에도 ‘4H’ 활동을 비롯해 노인회와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다양한 자생 조직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에치서 놀러 간 거. 어디 내창에. 스피카 막 두루멧 가곡. 산세미
오름 동쪽인가 조금 내려온 디. 우리 마을 청년덜 놀러 걸영 갔주기게.
스피카지곡 뻘뻘리 지곡 걸영 갔지. 멧 시간 한 세 시간은 걸어갔주.”

| 우리 사에이치에서 놀러 간 거. 어디 냇가에. 스피커 마구 두루매고서
가고. 산세미오름 동쪽인가 조금 내려온 데. 우리 마을 청년덜 놀러
걸어서 갔지. 스피커 지고 배터리 지고 걸어서 갔지. 멧 시간 한 세 시간은
걸어갔지.

- 박송자 씨 구술



4H 청년들과 산세미오름에서
(미상, 소장자 박송자)



4H 청년과 함께 산세미오름 내창 근처에서
(미상, 소장자 박송자)



애월면 4H 연합회 개편 대회 기념
(1962년, 소장자 강군자)



동력회 창립기념
(1962년, 소장자 김영순)

노인회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등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수산리 부녀회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는 마을 정비 활동에 앞장섰고, 합창단을 꾸려 인근 학교를 찾아 찬조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걸궁' 문화로 계승되고 있다.

“노인회장 할 때 수산 물메초등학교 아이들 데령 중요 교육한 거지.”

| 노인회장 할 때 수산 물메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서 중요 교육한 거지.

- 양용규 씨 구술

“우리 부녀회에서 노래 부르러 간 거라. 마을 부녀회에서 남읍초등학교 합창으로 간 때.”

| 우리 부녀회에서 노래 부르러 간 거야. 마을 부녀회에서 남읍초등학교 합창으로 갔을 때.

- 송옥자 씨 구술



수산리 노인회 하계충효교실 개강
(2003년, 소장자 양용규)



예원동 마을제
(2004년, 소장자 강남석)



수산리 새마을운동과 부녀회 마을 정비 활동
(1970년대, 소장자 김원출)



수산리 새마을운동과 부녀회 답사
(1970년대, 소장자 송옥희)

“큰동네서 찍은 사진인데 걸궁패덜 같이 찍은 거. 원래는 부녀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신밧기 할 때는 집이 강은에 마당도 돌곡 건물 안에 들어강 방도 돌곡 부엌도 돌고 허멍 소리를 해. 처음에는 거의 삼십 명 정도 뒤편사다. 겐디 지금은 한 십오 명 뉘신가? 우리 첫 정일에 마을제 지낸 다음에 풍물패서 그 날짜를 토요일, 일요일 잡앙 하루 마을 도는 거. 사발에 쌀도 넣곡 돈도 꽃앙 놓는 사람도 잇곡. 그냥 쌀만 주는 사람도 잇곡. 쌀 가져온 거는 떡국 행 노인정에도 드리곡 회원들 허곰씩 갈라주곡.”

| 큰동네에서 찍은 사진인데 건립패들 같이 찍은 거. 원래는 부녀회에서 시작해서. 지신밧기 할 때는 집에 가서 마당도 돌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방도 돌고 부엌도 돌고 하면서 소리를 해. 처음에는 거의 삼십 명 정도 뒤편사다. 그런데 지금은 한 십오 명 되는가? 우리 첫 정일에 마을제 지낸 다음에 풍물패에서 날짜를 토요일, 일요일 잡고 하루 마을 도는 거. 사발에 쌀도 넣고 돈도 꽃아서 놓는 사람도 있고. 그냥 쌀만 주는 사람도 있고. 쌀 가져온 거는 떡국 해서 노인정에도 드리고 회원들 조금씩 나눠주고.

- 박철성 씨 구술



남읍초등학교에서 수산리 부녀회 합창 공연
(1970년대, 소장자 송옥자)



물메 새봄맞이 걸궁
(2016년, 소장자 박철성)



수산리 여자 배구단 단체 사진
(1967년, 소장자 박송자)



수산리 체육대회 종합우승 기념
(1978년, 소장자 강홍중)



중문 천제연 마을 부부 동반 아우회
(1973년, 소장자 강남승)



수산리 당동 어머니들과 도일주 야유회 기념
(1985년, 소장자 전경순)

수산리 사람 이야기

3

1) 아이들 일상과 삶

사람의 생애주기는 백일잔치와 돌잔치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이가 생후 100일을 무탈하게 넘기거나 첫돌을 맞이했을 때 집안에서는 잔치를 열어 축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잔치에는 일가친척이 모여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집안에 따라서는 '심방'을 모셔와 아이의 앞날을 축원하기도 했다. 당시 심방을 모실 때에는 쌀 한 사발과 돈 천 원가량 마련했다.



아들 백일기념
(1965년, 소장자 김영순)

돌상은 집안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개 '곤밥(흰쌀밥)'과 국, 나물, 떡 등을 기본으로 차렸다. 당시 귀한 음식이었던 수박과 포도와 같은 과일, 과자와 음료수, 단팥빵, 케이크 등도 정성껏 준비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큰돈을 들여 서라도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을 남겼다.

“수박은 잘 나주. 게도 포도도 사다 놓은 척하고 이건 사과인가 뭐고게.”

| 수박은 잘 나지. 그래도 포도도 사다 놓은 척하고 이건 사과인가 뭇인가.

- 박송자 씨 구술

“심방 빌 때나 쌀도 한 사발 올렸을 거. 돈도 천 원 났을 거고.”

| 심방 빌 때나 쌀도 한 사발 올렸을 거. 돈도 천 원 났을 거고.

- 박송자 씨 구술



아들 백일기념
(1965년, 소장자 김영순)



큰 손주 백일을 기념하며
(1989년, 소장자 양용규)



둘째 아들 돌잔치
(미상, 소장자 박송자)



아들 돌잔치 기념
(1983년, 소장자 양길철)

과거 수산리 아이들의 일상은 마을의 거리와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다. 지금처럼 다양한 놀이기구가 없던 시절, 마을 안길과 수산저수지, 마을 곳곳에 심어진 감나무 아래, 그리고 농번기에는 밭 한가운데까지 모두 아이들의 놀이 장소였다.



조카들
(1960년대, 소장자 강군자)



막내아들과 마당
(1986년, 소장자 전경순)



감귤밭 아이들
(1960년대, 소장자 강군자)



첫째 딸 굴나무 사이에서
(미상, 소장자 박송자)



감나무 위 아이들
(1961년, 소장자 강남승)



애월 수산 길목에서 아이와 함께
(미상, 소장자 박규현)



누나와 함께
(미상, 소장자 양길철)

2) 청소년

물메초등학교의 설립은 수산리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 아이들은 거주지에 따라 인근 '하귀국민학교'와 '귀엄국민학교'로 나뉘어 다녔다. 아이들은 편도 2~3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통학해야 했으며, 추운 겨울이면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물메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장거리를 오가야 했던 아이들의 일상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수산 일구, 이구로 나뉘져 가지고 일구는 하귀국민학교 땡기고 이구는 귀엄국민학교 땡기고. 아이덜 추운 겨울에 학교 가는 것이 한 이키로, 삼 킬로 내려가다 보민 엄청나게 힘들었거든. 결국은 저 물메초등학교 천구백육십구 년에 생겼거든요.”

| 수산 일구, 이구로 나뉘져 가지고 일구는 하귀초등학교 다니고 이구는 귀엄초등학교 다니고. 아이들 추운 겨울에 학교 가는 것이 한 이 킬로, 삼 킬로 내려가다 보면 엄청나게 힘들었거든. 결국은 저 물메초등학교 천구백육십구 년에 생겼거든요.

- 박규현 씨 구술



1970년대 아이들
(1970년대, 소장자 강군자)



물메국민학교 삼 형제
(1980, 소장자 고영주)

당시 학교 건물이나 학생들의 복장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검은색 교복과 모자를 착용하였고, 여학생들은 저고리에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의 치마를 입었다. 머리는 대부분 귀밑까지 오는 단발머리였으며, 신발은 고무신을 주로 신었다. 겨울철 드물게 가죽신도 신었다고 한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운동화는 흔히 신는 신발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여자들은 교복 벗어나실 걸. 남자들만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모자에 국민학교 국 자 썼던 거 닮아. 나 졸업할 때까지 썼으니까 그 후에는 언제까진지 모르겠어.”

| 초등학교 다닐 때 여자들은 교복 없었을 걸. 남자들만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모자에 국민학교 국 자 썼던 것 같아. 내가 졸업할 때까지 썼으니까 그 후에는 언제까진지 모르겠어.

- 양길철 씨 구술



아버지와 친구들 학교 앞에서
(미상, 소장자 양길철)

“옛날에는 초등학생도양, 우리 초등학교 곧 들어간 때도 주로 모자 썬은 학교 뺏지 달양 학교 다녀났어. 나 이때 물메초등학교 었인 때. 우리가 육십구 년도에 물메초등학교 생겨시난. 우리 다닐 땐 이추록 교복 아니, 모자에 학교 뺏지만 행. 우리 다닐 때 한 이삼 학년까지 학교 검은 모자에 학교 뺏지 해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름표는 안 들고 손수건만.”

| 옛날에는 초등학생도요, 우리 초등학교 곧 들어갔을 때도 주로 모자 써서 학교 배지 달고서 학교 다녔었어. 나 이때 물메초등학교 없을 때. 우리가 육십구 년도에 물메초등학교 생겼으니깐. 우리 다닐 땐 이처럼 교복 아니, 모자에 학교 배지만 해서. 우리 다닐 때 한 이삼 학년까지 학교 검은 모자에 학교 배지 해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름표는 안 들고 손수건만.

- 박철성 씨 구술



구엄국민학교 시절 남매와 고종사촌
(1960년, 소장자 양길철)

학교생활 가운데 소풍과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학교 행사 가운데 하나였다. 물메초등학교의 소풍은 주로 수산봉에서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보리밥에 멸치 같은 마른반찬 한두 가지, 그리고 찐 고구마를 도시락으로 준비해 갔다. 평소에는 먹기 어려웠던 달걀 반찬이라도 먹을 수 있다며 아이들은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이후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야외 학습 장소도 중문관광단지와 중문해수욕장 등지로 넓어져 갔다.

**“보리밥 싸줬지 김치 아니민 메르치 조금 보꼬곡 계란 하나 영 해주곡
경현 때는 헛지. 아이들이 갓다와서 매일 가민 좋겟다고. 계란
반찬이라도 먹겟다고.”**

| 보리밥 싸줬지. 김치 아니면 멸치 조금 볶고 계란 하나 이렇게 해주고 그런
때는 헛지. 아이들이 갓다와서 매일 가면 좋겟다고. 계란 반찬이라도
먹겟다고.

- 홍성량 씨 구술



수산봉 아이들과 소풍
(1979년, 소장자 고영주)



물메초등학교 현장학습 테우 위 아이들
(1987년, 소장자 전경순)

이러한 외부 활동이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환기를 제공했다면, 학교 안에서 열리는 행사는 공동체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가을 운동회는 아이들과 학부모,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와도 같은 날이었다. 운동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장기를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풍물패 복장을 하고 음악에 맞춰 소고를 울리거나, 고운 한복에 족두리를 갖춰 쓰고 부채춤 공연을 펼쳤다. 하늘 위로 펼쳐지는 부채의 물결과 화려한 꽃봉오리 모양의 군무를 보며 마을 주민들도 함께 즐겼다고 한다.

“운동회 때 닳아. 우리 큰딸 운동회 때. 부채춤 었어졌어. 옛날 같이 운동회 안 하더라고.”

| 운동회 때 같아. 우리 큰딸 운동회 때. 부채춤 었어졌어. 옛날 같이 운동회 안 하더라고.

- 강인숙 씨 구술

“물메초등학교 운동회 때 참석한 거라. 우리 결혼하니까 시누이네 운동회 하는 데 가가지고 뭐 행 가서 먹곡. 초등학교 때 늙어신디 시어머님, 시누이, 우리 둘.”

| 물메초등학교 운동회 때 참석한 거야. 우리 결혼하니까 시누이네 운동회 하는 데 가서 뭐 해서 가서 먹고. 초등학교 때 늙었는데 시어머니, 시누이, 우리 둘.

- 전경순 씨 구술



큰말 가을운동회 부채춤
(1980년, 소장자 강인숙)



물메초등학교 운동회 사물놀이
(2004년, 소장자 강홍중)



물메초등학교 가을운동회
(1988년, 소장자 전경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애월읍 지역에 있는 귀일중학교와 신엄중학교에 진학하거나 일부는 제주시 내 학교 등으로 진학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 제주농업고등학교나 제주상업고등학교 진학을 선호하였으며,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오현고등학교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남학생들의 중·고등학교 교복은 검은색 바탕의 일제식 양식을 따랐으며, 학교명이 새겨진 교표(校標)나 ‘중(中)’, ‘고(高)’ 글자가 달린 모자를 착용하였다. 얼룩무늬 교련복은 생활복처럼 입고 다녔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검은색 교복에 흰 옷깃을 덧댄 형태의 교복을 착용하였다.

“목에 때 끼지 말라고 하얀 플라스틱 뭐라 그럴까 하얀 비닐로 묶은 거 하얀 카라를 해. 운동화 비쌌지. 운동화 한 번 사면 일 년 동안 신었을 거라. 하루 종일 그거 신영 땡기니까. 제일 많이 신영 땡겼던 건 범표 검정색 운동화.”

| 목에 때 끼지 말라고 하얀 플라스틱 뭐라 그럴까 하얀 비닐 같은 거 하얀 옷깃을 해. 운동화 비쌌지. 운동화 한 번 사면 일 년 동안 신었을 거야. 하루 종일 그거 신고 다니니까. 제일 많이 신고서 다녔던 건 범표 검은색 운동화.

- 양길철 씨 구술



귀일중학교 1회 입학생들 기념
(1950년대, 소장자 양용규)

“물메초등학교 졸업해도 당동네는 신엄중학교. 나머진 귀일중학교 다녔주만 우리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 신엄중학교, 당동네 사난. 여기서 귀일중학교가 교통편이 좋곡. 그땐 걸어다닐 때는 당동에서 신엄이 가깝고. 귀일중학교도 거의 걸영 다녔주. 중학교 도시락 싸곡. 나 다닐 때 마농지허고 초기 재배허는 디 가면 파치가 버섯 땡가리 그거 얻영 왕 물에 우젓당 간장 넣곡 그걸로 반찬 행 다니곡.”

| 물메초등학교 졸업해도 당동네는 신엄중학교. 나머진 귀일중학교 다녔지만 우리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 신엄중학교, 당동네 사난. 여기서 귀일중학교가 교통편이 좋고. 그땐 걸어다닐 때는 당동네에서 신엄리가 가깝고. 귀일중학교도 거의 걸어서 다녔지. 중학교 도시락 싸고. 내가 다닐 때 마늘장아찌하고 버섯 재배하는 데 가면 파치가 버섯 꼭지 그거 얻고 와서 물에 담갔다가 간장 넣고 그걸로 반찬 해서 다니고.

- 박철성 씨 구술



1950년대 교실 풍경
(1950년대, 소장자 강군자)

중·고등학생 시절 수학여행과 도보 일주, 원보 훈련 등은 학교생활의 꽃이었다고 한다. 그 중 서귀포 천지연폭포와 천제연폭포, 정방폭포는 필수 코스였으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를 배경으로 모여 앉아 기념사진을 남겼다.



제주농고 1학년 도보 일주 천제연폭포에서
(1954년, 소장자 양용규)



제주상업고등학교 도 일주 수학여행 천지연에서
(1962년, 소장자 홍행기)



수학여행 중 천지연 바위 위에서 친구들과
(1976년, 소장자 강군자)

또 학생들은 한라산 산행을 즐기기도 했다. 당시에는 백록담 출입 통제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아 분화구 근처까지 자유롭게 내려갈 수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는 한라산에서 취사와 야영도 허용되어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장소였다.

“원보 훈련했죠. 학년별로 일학년 때는 지금 천백도로 넘어강 중문중학교로 갔나? 이학년 때는 남조로 걸어서 표선고등학교 넘어가고. 삼학년 때는 한라산 정상 올라가고.”

| 원보 훈련했죠. 학년별로 일학년 때는 지금 천백도로 넘어가서 중문중학교로 갔나? 이학년 때는 남조로 걸어서 표선고등학교 넘어가고. 삼학년 때는 한라산 정상 올라가고.

- 양길철 씨 구술

“이거는 옛날 우리 남편 한라산 캠핑 가가지고 뭐 치고 놀아신게.”

| 이거는 옛날 우리 남편 한라산 캠핑 가서 뭐 치고 놀았네.

- 전경순 씨 구술



수학여행 한라산 백록담에서
(1968년, 소장자 강남승)



제주상업고등학교 수학여행 한라산 장구목
(1974년, 소장자 강홍종)



한라산 윗세오름 캠핑
(1972년, 소장자 전경순)



백록담에서
(미상, 소장자 송옥희)



한라산 구상나무 위 친구들과 함께
(1972년, 소장자 양길철)



원보 훈련 한라산 등반 호빵 먹기
(1972년, 소장자 양길철)

졸업식 날이면 선생님과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진을 찍는 일은 중요한 졸업식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수산리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 인근 사진관 사진사가 직접 찾아와 졸업 사진 촬영을 맡았다고 한다. 단체 사진은 물론이고 개인 독사진을 남기는 일이 흔치 않아 좋은 기회였다. 배경은 주로 학교 교정이나 목조 교사(校舍) 앞에서 이루어졌다. 일부 학생들은 졸업장을 손에 든 채 기념사진을 남기곤 했다.

“학교 졸업 사진 같은 거는 사진사 와근에 찍는 거.”

| 학교 졸업사진 같은 거는 사진사 와서 찍는 거.

- 양용규 씨 구술

“귀일중학교 세 개 반이었는데 남자 두 개 반, 여자 한 개 반. 당시만 해도 우리 사 년 후배부터 물메초등학교 다녔는데, 인원수가 수산이 워낙 많았거든. 우리 수산만 한 개 반.”

| 귀일중학교 세 개 반이었는데 남자 두 개 반, 여자 한 개 반. 당시만 해도 우리 사 년 후배부터 물메초등학교 다녔는데, 인원수가 수산이 워낙 많았거든. 우리 수산만 한 개 반.

- 강홍중 씨 구술

“우리 합해서 거의 구십 명 됐실 걸.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잇었어. 담임은 문창인 선생님. 두 개 반이었고 여자, 남자 반으로 나뉘었지. 그럼 한 사십, 사십오 명 정도 되었죠.”

| 우리 합해서 거의 구십 명 됐을 걸.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잇었어. 담임은 문창인 선생님. 두 개 반이었고 여자, 남자 반으로 나뉘었지. 그럼 한 사십, 사십오 명 정도 되었죠.

- 양길철 씨 구술



구암국민학교 제5회 졸업 기념
(1948년, 소장자 양용규)



구엄국민학교 제11회 졸업 기념
(1955년, 소장자 고영주)



구엄국민학교 여학생들과 선생님 졸업 기념
(1960년, 소장자 양길철)



하귀국민학교 졸업 기념
(1958년, 소장자 홍행기)



하귀국민학교 제14회 졸업기념
(1960년, 소장자 김원출)



물메국민학교 제6회 졸업기념
(1978년, 소장자 송옥희)



물메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와 담임 선생님
(1976년, 소장자 강옥순)



물메초등학교 제30회 졸업기념
(2003년, 소장자 강홍중)



제주제일중학교 제6회 졸업기념
(1957년, 소장자 김원출)



제주제일중학교 제10회 졸업기념
(1961년, 소장자 홍행기)



귀일중학교 제10회 졸업기념
(1963년, 소장자 김원출)



제주상업고등학교 제10회 졸업사진
(1963년, 소장자 홍행기)



제주농업고등학교 제6회 농업과 졸업기념
(1957년, 소장자 양용규)

3) 성년

수산리 사람들의 온정은 가족사진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가족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독사진을 찍으며 삶의 한 시절을 기록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족 사진은 조부모와 부모, 손자가 함께 남기는 유일한 매체였다.

또 사진을 통해 당시 가옥과 의복의 변화상도 볼 수 있다. 제주 전통 초가와 돌담의 모습부터 슬레이트 지붕과 시멘트벽으로 바뀌어 가는 풍경까지 고스란히 남겨졌다. 특히 의복은 집안의 격식과 생활상을 보여주었다. 여성들은 평소 정갈한 생활복 차림을 하였지만 큰일이 있을 때는 단정하게 갖춰 입었다. 다만 머리에는 늘 흰 수건을 둘러 매무새를 정돈하곤 했다. 남성들은 한복에 마고자나 두루마기를 걸치거나 양복을 즐겨 입었다.



가문 어른들 기념
(미상, 소장자 양길철)



가족 기념 사진
(미상, 소장자 송옥희)



가족 모습
(1950년대, 소장자 강군자)



아이들과 함께
(미상, 소장자 송옥희)



친정어머니와 동생
(1960년대, 소장자 김원출)



딸과 함께
(1970년대, 소장자 박송자)



농업학교 입학 기념
(미상, 소장자 양용규)

약혼식은 가족 중심의 소박한 의례로 치러졌다. 보통 결혼을 며칠 앞두고 인근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서로 반지를 주고받는 정도로 약혼식을 대신하였다. 오른편 사진 속 정갈한 차림으로 마주 앉아 반지를 나눠 끼는 모습은 당시 수산리 청년들에게 보편적인 약혼 풍경이었다. 이후 가까운 야외로 나들이를 떠나 추억을 남겼다고 한다.

**“처음 만나난 같이 다니명 사진 찍은 거. 이것이 약혼사진. 어디 강 사진
찍꼭 뭐 먹꼭 헐.”**

| 처음 만나니깐 같이 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 이것이 약혼사진.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뭐 먹고 했어.

- 강군자 씨 구술

“약혼 시절 놀러 다닌 거, 한라산 어승생 앞에.”

| 약혼 시절 놀러 다닌 거, 한라산 어승생 앞에.

- 전경순 씨 구술



약혼 기념 사랑봉 산지등대 나들이
(1969년, 소장자 홍행기)



양옥선 · 고상배 씨 약혼 기념
(1975년, 소장자 박규현)



약혼 기념 예물 교환
(1989년, 소장자 이순정)

제주의 전통 혼례는 보통 3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주로 양가에서 '가문잔치'를 여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혼례는 단순한 집안 행사를 넘어, 온 마을 주민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부조하며 어울리는 큰 행사이기도 했다. 물론 시대가 흐르면서 혼례 공간과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다. 1960년대까지 대부분 집안 마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전통 방식으로 치렀다면, 1970년대 후반부터 전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났다.

**“집이서도 허고 또 옛날은 그 회관에서. 촌에선 시내 강 안 해 보고 뭐 한
사람은 하귀 강 허곡. 다른 사람은 집에서.”**

|집이서도 하고 또 옛날은 그 회관에서. 촌에선 시내 가서 안 해보고 뭐 한
사람은 하귀 가서 하고. 다른 사람은 집에서.

-홍행기 씨 구술

**“가문잔치 허영 뒷날 또 잔치해야지. 가문잔치는 여자칩 왕 허는 거.
잔치할 때 돼지 잡아신디 괴기 같은 건 해야 먹을 거.”**

|가문잔치 해서 뒷날 또 잔치해야지. 가문잔치는 여자집 와서 하는 거.
잔치할 때 돼지 잡았는데 고기 같은 건 해야 먹을 거.

-김영순 씨 구술

혼례 당일 아침이 되면 신랑 집에서는 가장 먼저 '문전제'를 거행한다.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음을 '문전신(집안을 지켜주는 신)'에게 알리는 의례이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새신랑과 신부의 앞날에 평안과 안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였다. 문전제를 지낼 때에는 돼지머리의 턱 윗부분과 흰 메, 세 가지 과일, 술, 각종 전과 두부 등을 제물로 마련하였다. 그 곁에는 붉은 천으로 감싸고 흰 무명실로 묶은 '홍세함'을 함께 올려두었다.



홍세함 문전제
(1989년, 소장자 강홍중)



홍세함을 놓고 지내는 문전제
(1963년, 소장자 강옥순)



신랑집에서 지내는 문전제
(1975년, 소장자 박규현)

‘홍세함’은 혼례 당일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을 말한다. 집안 형편에 따라 함 안에 넣는 물품은 조금씩 달랐지만, 예장과 무명이 대표적이었다. 이 밖에도 ‘시령목’ 한 필 등 예물을 함께 넣기도 했다. 물론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는 ‘홍세함’을 인근 ‘물건칩(상점)’에서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다.

“함에 막편지라고 편지 써근에 놔가지고 허엿지. 그 함 속에 옛날은 광목이나 옷감이나 경 아녀는 목화솜으로 짠 미녕이나 그걸 넣어.”

| 함에 예장이라고 편지 써서 놔가지고 했지. 그 함 속에 옛날은 광목이나 옷감이나 그렇지 않으면 목화솜으로 짠 무명이나 그걸 넣어.

- 홍성량 씨 구술

“잔치 때 이거 문전에 낵 절허는 거. 옛날에 잔치허젠 허면은 아침 새벽이 영 함 싰 거 놔근에 절해나수다. 돛대가리 영헤 놔서. 신부칩이곡 신랑칩이고 허는 덴 다 헤여. 이거 문제. 사과 배 이거 하나씩 행 세 가지. 술허곡 떡은 안 올리곡. 문제는 꼭 지내야 돼.”

| 잔치 때 이거 문전에 놔서 절하는 거. 옛날에 잔치하려고 하면 아침 새벽에 이렇게 함 싰 거 놓고서 절했었습니다. 돼지머리 이렇게 놓고서. 신부집이고 신랑집이고 하는 덴 다 해. 이거 문제. 사과 배 이거 하나씩 해서 세 가지. 술하고 떡은 안 올리고. 문제는 꼭 지내야 돼.

- 송옥희 씨 구술

“이불 행 가야지. 우리 친정어머니네가 다 만들어 준 거지. 이불 두 채허곡 작부둥이여 무슨거여. 그릇도 몇 개 해 놓곡. 세숫대 그런 거주. 하영 안 행 가. 엇으난 하영 못했지. 요강도 가져 가곡. 이녁 임시 강 쓸 거 세수대. 조그만한 문갑. 우리 할아버지가 나무 좋은 거 해단 하나 짜주난 그거 가지고 와난.”

| 이불 해서 가야지. 우리 친정어머니네가 다 만들어 준 거지. 이불 두 채하고 방석이다 무엇이다. 그릇도 몇 개 해 놓고. 세숫대야 그런 거지. 많이 안 해서 가. 없으니깐 많이 못했지. 요강도 가지고 가고. 이녁 임시 가서 쓸 거 세숫대야. 조그만한 문갑. 우리 할아버지가 나무 좋은 거 해다가 하나 짜주니깐 그거 가지고 왔었어.

- 김영순 씨 구술

“함 속에 광목이나 옷감 아니민 그 목화솜으로 짠 미녕이나 그걸 낫어. 잇는 집에는 함 속에 낫다가 신랑 옷허영 입히나 아니민 아기 지성귀 샷바 허여주라 영 허는데, 우리는 어려워 걸 물건칩이 강 빌려다가. 우리 집도 경 해당 쓸 줄 알았주. 할머니이 삼 일 이시난 함 가져와라 영 해연.”

| 함 속에 광목이나 옷감 아니면 그 목화솜으로 짠 무명이나 그걸 낫어. 잇는 집에는 함 속에 낫다가 신랑 옷 해서 입거나 아니면 아기 기저귀 샷바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려워서 걸 상점에 가서 빌려다가. 우리 집도 그렇게 해다가 쓸 줄 알았지. 할머니이 삼 일 잇으니깐 함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어.

- 홍성랑 씨 구술

신랑 집에서 ‘문전제’를 마치면 신랑은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우시(위요)’와 함께 신부 집으로 향한다. 이때 ‘홍세함’을 앞세운다. 당시 신랑과 우시들이 지나가는 마을 길은 집안의 경사와 잔치를 알리는 풍경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홍세함은 신부 집안에서 정중히 맞이하였고, 신부의 집안에서 가장 덕망 있는 어른이 함 안에 담긴 ‘예장’을 읽으며 양가의 인연을 확인하였다. ‘예장’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정중하게 보내는 문서로, 신랑의 사주와 집안 내력 등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친정 펜으로 우시 갔다가 찍은 거 닳아. 시집 펜이 권당덜이니까
사진들 찍으렘 헛 거남 사진들 찍은 거.”

|우리 친정 펜으로 위요 갔다가 찍은 거 같아. 시집 펜의 권당들이니까
사진들 찍으라고 한 거니깐 사진들 찍은 거.

-김영순 씨 구술

‘홍세함’을 들이면 정식으로 신랑을 신부집으로 들인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가문의 첫 손님인 신랑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신랑상’을 대접하였다. ‘신랑상’은 신랑과 부신랑이 받는 상으로, 신부 집안 어른이 직접 차려 대접하였다. 상에는 고기와 술, 과일, 쌀밥 등을 올려 새로 맞이하는 사위에게 신부를 잘 보살펴 달라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정성껏 차린 ‘신랑상’을 받은 뒤에는 신부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결혼식날 '홍세함' 나가기
(1993년, 소장자 박철성)



큰아들의 결혼식 '홍세함' 들이기
(1990년, 소장자 강옥순)



홍세함을 맞는 신부 가족들
(1974년, 소장자 박철성)



신부집 홍세함 받고 예장 읽는 모습
(1975년, 소장자 박규현)



신부집 흥세함 속 예장
(1989년, 소장자 이순정)



신부댁에서 받는 신랑상
(1975년, 소장자 전경순)

신부 집에서 혼례 절차를 마치면 신랑과 신부는 신랑 집으로 이동하였다.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은 말을 타고 길을 나섰다. 말과 가마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던 것이었다. 신랑이 탄 말은 '부신랑'이나 말 주인이 고삐를 잡고 이끌었으며, 가마는 수산리 마을에서 허드렛일을 맡던 하인이 메고 이동하였다. 신랑신부가 길을 나설 땐 '올레'에 드리운 '솔문' 사이를 지나갔다고 한다. '솔문'은 액운을 막고 앞날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랑은 몰 타곡. 신랑 몰 타민 몰 아구리 심으멍 가곡 또 우리가 가마 타면은 가마도 들렁 다니곡 허는 사름이 잇었어. 후곰 저 밑에 사름들이지.”

| 신랑은 말 타고, 신랑 말 타면 말 주둥이 잡으면서 가고 또 우리가 가마 타면 가마도 들어서 다니고 하는 사름이 있었어. 조금 저 밑의 사름들이지.

- 김영순 씨 구술

신랑 집에 도착한 새신랑과 신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올레'를 지나 집안으로 들어섰다. 특히 신부는 '올레'를 거쳐 마당 안으로 들어서야 비로소 시댁 식구의 일원으로 인정 받았다고 한다.



말을 탄 신랑과 가마 탄 신부
(1963년, 소장자 강옥순)



가마를 타고 시덕으로 나서는 길
(1963년, 소장자 강옥순)



시댁 올레를 들어서는 새신랑과 신부
(1963년, 소장자 강옥순)



신랑 댁으로 향하는 새신랑과 신부
(1971년, 소장자 박송자)

잔칫날의 분위기는 집안 형편과 준비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집안 마당에는 ‘느람지(이영)나 명석을 갈아 깨끗하게 마련하였다. 초가지붕 사이에는 천막이나 만국기를 걸어두어 집안의 경사를 알렸다. ‘올레’ 입구에는 ‘솔문’을 세웠는데, 대부분 ‘솔문’은 신랑 친구들이 대나무와 동백나무, 소나무 등을 엮어 만들었다고 한다. 또 앞마당에는 봉황 그림을 수놓은 천막을 쳐두었고, 그 주변엔 부조로 들어온 물건을 놓기도 하였다.

“말 타고 가마 타고 시택 가가지고 가마에서 내릴 때 시어머니 장옷을 쓰고 내려야. 장옷 두 개를 해. 하나 입고 하나는 쓰고 행 가마 문을 신랑이 열어주거든. 이거 둘러리는 또 옆에 잇다가 같이 도와줘.”

| 말 타고 가마 타고 시택 가서 가마에서 내릴 때 시어머니 장옷을 쓰고 내려야. 장옷 두 개를 해. 하나 입고 하나는 쓰고 해서 가마 문을 신랑이 열어주거든. 이거 둘러리는 또 옆에 잇다가 같이 도와줘.

- 강옥순 씨 구술

“친구들이 소나무 갖다가 기냥 꾸며진에.”

| 친구들이 소나무 갖다가 그냥 꾸며서.

- 홍행기 씨 구술

“술문 해근에 그 술문 신 바로 그 대문으로 들어오주게. 우리 영 사진 찍을 때 팽풍 영 친 디 우리가 사서 사진 찍은 거. 꽃덜 아메도 신랑 친구들이 해줘실 거라.”

| 술문 해서 그 술문 있는 바로 대문으로 들어오지. 우리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병풍 이렇게 친 데 우리가 서서 사진 찍은 거. 꽃들 아메도 신랑 친구들이 해줬을 거야.

- 김영순 씨 구술

“친구들이 요 입구에다 동백나무랑 솔나무랑 뭐 꾸며간에 술문을 만들어.”

| 친구들이 요 입구에다 동백나무랑 소나무랑 꾸며서 술문을 만들어.

- 박규현 씨 구술

예식은 주로 신랑 집 마당에 마련된 공간에서 치러졌다. 주례는 마을에서 덕망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모셨는데, 당시에는 물메초등학교 초대 교장인 김재운 선생님이 자주 맡았다고 한다. 주례 말씀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진하였고, 이후 기념사진을 찍으며 혼례식은 마무리되었다.



보릿대 놀 앞에서 혼례 준비
(1964년, 소장자 홍행기)



혼인서약서에 지장을 찍는 신부
(1963년, 소장자 강옥순)

“혼인 서약이라는, 혼인 서약할 때 손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시택에
가가지고 그거 절하고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혼인서약서 지장을 찍는
거지.”

| 혼인 서약이라는, 혼인 서약할 때 손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시택에
가서 그거 절하고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혼인서약서 지장을 찍는 거지.

- 강옥순 씨 구술



혼례식 중 주례 말씀 듣는 신랑신부
(1975년, 소장자 박규현)



주례자 앞에서 선 신부
(1975년, 소장자 전경순)

“신부상이야 받주. 신부상 받아근에. 신부상에 후곰 친족 어른들허곡
앗앗당. 았앗다긴에 그 신부 밥 거령 아이들 무동 강 아이덜 막 사면은 손
받으은 밥 거령 훈 숟가락씩 거리주. 게은 거기도 이녁 아는 친족이라도
잇어야 그 밥 훈 숟가락 얻어먹주, 거 아무나 못 얻어먹어. 신부상에
올라간 거 전 지진 것들허곡 계란 삶은 것덜 무신거주. 벨로 경 하영.
그때사게 뎜뿌라 같은 거 막 지정.”

| 신부상이야 받지. 신부상 받아서 신부상에 조금 친족 어른들하고
았앗다가. 았앗다가 그 신부 밥 떠서 아이들 문밖에 가서 아이들 마구
서면 손 받으면 밥 떠서 한 숟가락씩 뜨지. 그러면 거기도 이녁 아는
친족이라도 있어야 그 밥 한 숟가락 얻어먹지, 거 아무나 못 얻어먹어.
신부상에 올라간 거 전 지진 것들하고 계란 삶은 것들 무엇이지. 벨로
그렇게 많이. 그때야 튀김 같은 거 마구 지지고.

- 김영순 씨 구술



전통 혼례복을 입은 부부
(1960년대, 소장자 김원출)



혼례식 신랑신부
(1963년, 소장자 강옥순)



혼례날 신랑신부
(1964년, 소장자 김영순)



혼례 기념 사진
(1971년, 소장자 박송자)



혼례 기념 사진
(1975년, 소장자 박규현)

혼례 사진을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제주 혼례 복식도 확인된다. 예로부터 신랑은 관복에 사모관대를 착용하였고, 신부는 '장옷'을 입고 머리에 족두리를 썼다. 1960년대 중반부터 종이로 만든 꽃 부케를 신부 손에 든 모습도 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나 흰 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당시 웨딩드레스는 인근 미용실에서 빌려 입었다고 한다. 또한 머리에는 화관이나 면사포를 쓰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옛날엔 사모관대 써근에 뽕 돋은 거 썩 헛났잖아. 견데 나 할 때는 여자는 족두리 쓰꼭 남자는 신식으로 헛센 행 난 양복을 입었거든.”

| 옛날엔 사모관대 써서 뽕 돋은 거 써서 헛었잖아. 그런데 나 할 때는 여자는 족두리 쓰고 남자는 신식으로 하라고 해서 난 양복을 입었거든.

- 고영주 씨 구술

“족두리 써 그땐 면사포도 썼주만 장옷 입고 족두리 써 그냥. 이거 장옷 옛날에 시집 장게 가젠 허면 장옷이영 요거영 곳창 마을에서 났었다 빌려줘. 우리 친정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

| 족두리 써 그땐 면사포도 썼지만 장옷 입고 족두리 써 그냥. 이거 장옷 옛날에 시집 장가 가려고 하면 장옷이랑 요거랑 갖춰서 마을에서 났었다가 빌려줘. 우리 친정에서 만든 거 아니.

- 김영순 씨 구술

“드레스 미장원 미용사가. 양복은 우리 시어머니가 사단 놔둔 거라. 양복도 고운 거 입고. 이 면사포도 그 미용실에서 다 빌려준 거. 결혼식 날만 드레스 벗고 한복 입고. 견디 우리 군인 휴가 왔단 결혼했단에 신혼여행도 그때 당시는 안 갔주. 삼성혈 신혼여행 간다고 해서 군인 마주 보내면서 삼성혈 간 찍언. 나 연두색 한복.”

| 드레스 미용실 미용사가. 양복은 우리 시어머니가 사다가 놔둔 거야. 양복도 고운 거 입고. 이 면사포도 그 미용실에서 다 빌려준 거. 결혼식 날만 드레스 벗고 한복 입고. 그런데 우리 군대 휴가 왔다가 결혼했다가 신혼여행도 그때 당시는 안 갔지. 삼성혈 신혼여행 간다고 해서 군대 마주 보내면서 삼성혈 가서 찍었어. 나 연두색 한복.

- 강인숙 씨 구술



훈레 치르는 날 친정 식구와 함께
(1963년, 소장자 강옥순)



혼례 기념 사진
(1964년, 소장자 김영순)



혼례 친지와 함께
(1965년, 소장자 고영주)



혼례 기념 본가에서
(1969년, 소장자 홍행기)



작은누나 결혼 기념 친정 식구와 함께
(1970년대, 소장자 양길철)



친정 친족과 함께 혼례 기념
(1971년, 소장자 박송자)



혼례 기념 가족 사진
(1975년, 소장자 박규현)

부부가 혼인한 지 예순 해를 맞아 치르는 잔치를 회혼례라 한다. 이날은 부모의 장수와 가문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로, 자식들이 정성껏 잔칫상을 마련해 효를 다했다고 한다. 회혼례 상차림에는 사과와 배, 파인애플, 시루떡, 씨암탉, 생선 등 당시 귀하게 여겨지던 과일과 음식들을 풍성하게 올렸다.

“결혼허곡 육십 년이 되면 회혼례 했지. 잔치했지. 이거 잔 드리는 거주.
이제 축하주 드리는 거.”

| 결혼하고 육십 년이 되면 회혼례 했지. 잔치했지. 이거 잔 드리는 거지.
이제 축하주 드리는 거.

- 양용규 씨 구술



장인·장모 회혼례
(1977년, 소장자 양용규)



부모님 회혼례
(1977년, 소장자 박규현)

태어난 지 60년이 되는 해를 맞는 ‘회갑(回甲)’ 또는 ‘환갑(還甲)’은 단순히 장수를 기념하는 일을 넘어 마을에서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례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환갑을 넘긴 어른에게 향교에서 ‘훈장(訓長)’이라는 직함을 수여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때 받은 증서를 ‘훈장체(訓長帖)’라고 한다. 훈장체를 받는 일은 집안과 마을의 큰 명예로 여겼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집안에서 잔치를 열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한다.

“훈장 때 사진인게, 향교에서 훈장체 줄 때 잔치를 벌였지. 돼지 잡곡 해근에 마을 사람덜 불러 잔치했지. 훈장이란 직함. 직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처서 쓰는 디 잇고 학생 쓰는 디가 잇곡 허는디.”

| 훈장 때 사진이야, 향교에서 훈장체 줄 때 잔치를 벌였지. 돼지 잡고 해서 마을 사람들 불러 잔치했지. 훈장이란 직함. 직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처서 쓰는 데 잇고 학생 쓰는 데가 잇고 하는데.

- 강홍중 씨 구술

“훈장은 이 동네에 육십 뒤편은 받는 거고. 훈장 그거는 제주향교 간에 훈장체 받아와야 돼.”

| 훈장은 이 동네에 육십 되면 받는 거고. 훈장 그거는 제주향교 가서 훈장체 받아와야 돼.

- 박규현 씨 구술



시부모 회갑기념
(1960년대, 소장자 김원출)



외조부 훈장 직함 수여 기념
(1963년, 소장자 박규현)



훈장 수여 기념
 (미상, 소장자 양길철)



부친 훈장 제수 기념
(1968년, 소장자 강남석)

이날은 자식들이 자식 된 도리로 정성껏 환갑잔칫상을 마련하였다. 상 한가운데에는 삶은 닭 한 마리와 턱 윗부분의 돼지머리를 올리고, 그 주변으로 시루떡과 약과, 생선, 과일 등을 풍성하게 차렸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1980년대 이후부터는 현대식 케이크와 빵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다 우리가 만든 거. 머리뼈랑 보기 좋게 할라고. 상차림이 너무 조그마하지 않게. 튀김들은 우리가 했지만 떡 이런 거는 방앗간에 가서. 돈이랑 우리가 이렇게 앞이 챙기곡 했어. 천 원장도 금방 나왔을 때일걸. 동네 사람 다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환갑 지날 향교 가서 체 받아와 그렇게 훈장님이렌 불러.”

| 다 우리가 만든 거. 머리뼈랑 보기 좋게 하려고. 상차림이 너무 조그만하지 않게. 튀김들은 우리가 했지만 떡 이런 거는 방앗간에 가서. 돈이랑 우리가 이렇게 앞에 챙기고 했어. 천 원장도 금방 나왔을 때일걸. 동네 사람 다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고. 환갑 지나서 향교 가서 체 받아와 그렇게 훈장님이라고 불러.

- 강정자 씨 구술

특히 어르신들은 유복(儒服)이나 흰 도복을 입고, 머리에는 유건(儒巾)이나 정자관(程子冠)을 갖춰 써 예를 갖추었다. 대부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식들이 차려준 상 앞에 앉고 제주 전통 8~9폭 병풍을 배경으로 삼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한다.



환갑잔치와 상차림
(1982년, 소장자 홍행기)



모친 환갑기념 잔치
(1985년, 소장자 전경순)



환갑잔치 기념
(미상, 소장자 양길철)



유복과 유건을 갖춰 입고 환갑잔치
(1990년대, 소장자 양용규)

제주 전통 상례는 대부분 집안에서 치러졌다. 상례에 필요한 의복과 제물 등은 동네 어른들과 친척들이 함께 마련하였고, 집안에서 덕망 높은 어른의 도움을 받아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초상이 나면 중상일과 복일, 중일 등을 피해 길한 날을 택하였다. 이 때문에 장례 기간은 보통 5일 이상 이어졌다.

“우리 집에서 장사를 했으니, 장례식장 안 가고 집에서 치렀어. 영장 뒤에
잇곡 저기 상 차렸주게. 옛날은 다 경했어. 이 뒤에 관 놔두곡 평풍 이렇게
청 여기다 상 모셨지.”

|우리 집에서 장례를 했으니, 장례식장 안 가고 집에서 치렀어. 영장 뒤에
있고 저기 상 차렸지. 옛날은 다 그랬어. 이 뒤에 관 놓아두고 병풍 이렇게
치고 여기다 상 모셨지.

- 박송자 씨 구술



모친 제상과 상주
(1987년, 소장자 강남승)



모친 제상과 상주
(1987년, 소장자 강남승)

장례를 치르는 동안 상주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였다. 사진 속 남자 상주는 거친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건대'를 두른 두건을 썼다. 또한 일곱 매듭을 지은 '찍동(짚동)'과 '방장대(상장)'를 곁에 두어 예를 갖추었다. 장례 이후에도 고인을 기리는 의례는 이어졌다. 초상 후 1년 동안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삭망제(상식)'를 올렸고, 이후 '소상'과 '대상'을 치렀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고향을 떠나 있던 이들도 타국에서 돌아와 상주 역할을 맡으며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한다. 물론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숙부와 장인이든 등 일가친척들도 함께하며 슬픔을 나누었다.

“우리 친정 고모님이 일본 오사카에 살면서 우리 친정 성할머니 돌아간
때 이 고모님이 상준디 제주에 못 들어오니까 일본에서 소상하는
모습이고.”

| 우리 친정 고모님이 일본 오사카에 살면서 우리 친정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고모님이 상주인데 제주에 못 들어오니까 일본에서 소상하는
모습이고.

- 박규현 씨 구술



일본 오사카에서 올린 소상
(1965년, 소장자 박규현)

큰일을 치르는 동안에는 손님들을 위해 술과 고기 등을 넉넉하게 마련하였다. 제상에는 수박과 바나나처럼 당시에는 귀하게 여겼던 과일을 비롯해 여러 음식과 술을 올렸고, 상 주변에는 꽃을 놓아 장식하였다. 또한 조문객들이 건넌 부조 봉투와 한 되짜리 대형 소주 병은 제주(祭酒)로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인 '문전신'을 위한 '문전상'도 본상 근처에 따로 마련하였다.



대상제에서 장인과 숙부
(1989년, 소장자 강남승)



첫 '식계' 문전제
(1996년, 소장자 박송자)



첫 '식개' 본상
(1996년, 소장자 박송자)

제주에서 가장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었다. 설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지낸 뒤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또한 가까운 거리라면 친지나 이웃집을 찾아 인사를 드렸으며, 친구의 부모님도 찾아가 '과세'를 올리는 문화도 있었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벌초' 역시 큰일 중 하나였다. '문중벌초'를 위해 일가친척이 모두 모여 조상의 묘를 찾아갔고, 어린아이들은 이를 위해 주어지는 '벌초방학'을 기다렸다고 한다.

벌초는 미리 준비한 '호미(甬)'로 무덤 주변의 풀을 베고, 허물어진 '산담'을 손보는 일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벌초를 마친 뒤에는 모두가 모여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차려놓고 조상께 술을 올렸으며, '차롱'에 담아 온 밥을 함께 나눠 먹기도 했다.



정월 명절 과세 기념 큰딸 친구들과 함께
(1982년, 소장자 강남승)

“할아버지 산소 여기로 온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인데 그 밑에 자손들이 다 모여서 같이 벌초를 하고. 문중벌초지. 음력 팔월 초하루 전 일요일 직전. 옛날에 벌초할 때는 나는 별로 안 다녔는데 차롱에 밥 상 가지고, 호미 각자 다 가져가. 각자 집에서 다 골아가지고 하나씩. 패랭이들 많이 썼지.”

| 할아버지 산소 여기로 온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인데 그 밑에 자손들이 다 모여서 같이 벌초를 하고. ‘문중벌초’지. 음력 팔월 초하루 전 일요일 직전. 옛날에 벌초할 때는 나는 별로 안 다녔는데 채롱에 밥 싸서 가지고, 낫 각자 다 가져가. 각자 집에서 다 갈아서 하나씩. 패랭이들 많이 썼지.

- 양길철 씨 구술



벌초방학 경운기 타고 벌초 가는 길
(1985년, 소장자 전경순)



양 씨 집안 문중벌초
(미상, 소장자 양길철)



양씨 집안 문중별초 후 배례
(미상, 소장자 양길철)



강씨 집안 문중 벌초
(1985년, 소장자 강홍중)



젯술 올리기
(1989년, 소장자 전경순)

수산리 주민들은 바쁜 농번기를 지나 농한기나 특별한 기념일을 맞으면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제주 곳곳의 명승지를 찾아 나들이를 다녔다. 마을 인근 수산봉을 비롯해 제주시의 무수천과 관덕정, 사라봉, 용두암, 이호해수욕장 등이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였다.

“무수천은 우리 소풍 꽃이라 그랬어. 사라봉 간 우리 술 한 잔 먹었저 하는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고. 꽤 멀리 시내버스도 거의 저 외도까지 걸영 가근에 시내버스 타서 시외 가근에 한 잔 먹곡.”

| 무수천은 우리 소풍 꽃이라 그랬어. 사라봉 가서 우리 술 한 잔 먹었저 하는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고. 꽤 멀리 시내버스도 거의 저 외도까지 걸어서 가서 시내버스 타서 시외 가서 한 잔 먹고.

- 박규현 씨 구술

한편, 서귀포의 산방굴사와 정방폭포, 천제연폭포 등은 먼 친척이나 가족이 고향을 찾았을 때 함께 다녀오던 장소였다. 또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야영을 즐기기도 했는데, 고사한 구상나무와 백록담을 구경하는 일이 큰 즐거움이었다고 한다. 나들이를 갈 때에는 미리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였다. 둥근 반합에 여러 반찬을 담아 챙기고, 뒷병에 담은 소주와 주전자에 담은 물도 빠지지 않는 준비물이었다. 물론 가까운 곳으로 나갈 때에는 밥이 식지 않도록 솥째 들고 다녔다고 한다.



사랑봉 가족 나들이
(1963년대, 소장자 박송자)



용두암 나들이 육촌 친족과 함께
(미상, 소장자 박송자)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무수천에서
(1967년, 소장자 박규현)



이호해수욕장 동생과 함께
(1970년대, 소장자 강옥순)





한라산 진입로 교량에서 부부동반 나들이
(미상, 소장자 김원출)





물장오리 화구호에서 나들이
(1970년대, 소장자 강인숙)



천제연 제3폭포에서 나들이
(미상, 소장자 김원출)



정방폭포 뒤편 앞 나들이
(미상, 소장자 고영주)

마을:記

애월읍 수산리, 기억으로 엮은 사진과 이야기

발행일	2025년 12월 30일
인쇄일	2025년 12월 30일
발행인	김완병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전화 064-726-5623 누리집 www.jst.re.kr

연구 책임	현혜림
연구 보조	양재연
조사 요원	김병효 김선희 김지혜 이현옥

디자인&인쇄	인플래닝
드론 촬영	DRONEX

비매품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경우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 및 복제는 금합니다.

주민들은 “다시 꺼내 볼 줄 몰랐던 사진들을 오랜만에 펼쳐 보인다”며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과 마을의 옛 풍경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꺼내갔다. 주민과 함께한 면담 작업은 사진 자료의 기초 데이터 구축과 정보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 동시에 낡은 사진 속에 담긴 마을 이야기와 삶의 흔적을 최대한 복원하는 일이었다. 수집된 사진 속에는 삶의 중요한 순간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한 행사 기록,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마을 옛 풍경 등이 담겨 있었다.